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조광희* 정태범**

<目 次>

- I. 서론
- II. 회계환경으로서의 문화와 역사
- III.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점
- IV. 결론

I. 서론

회계는 기업의 언어로서 많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단으로 기업을 이해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 회계제도는 한 국가의 법률환경이나 문화적 요인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록 그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겪으며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급속도로 진행하였다. 반면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으나 꾸준히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두 나라는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단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경제성장의 한축

*동국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phdcho@dongguk.edu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tbjeong@sm.ac.kr

과 그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서도 두 나라는 전략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의 회계기준과 중국의 회계제도에는 유사한 점이 존재하면서도 발전 단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계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 환경을 비교하면서 본 연구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회계 환경으로서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Hofstede의 척도를 원용하여 서술하고, 다음으로는 회계 환경으로서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하여 일본식 부기제도의 도입부터 계획경제와 개방경제로 이어지는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회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회계환경으로서의 문화와 역사, 제3장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점, 제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회계환경으로서의 문화와 역사¹⁾

2.1 문화 환경

문화(文化, culture)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말하는데 문화란 말은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론 기반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²⁾ 종교, 법, 기술, 예술, 관습, 양식 등 보다 광범위한 것들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으로서 문화를 정의할 때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공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문화의 속성에 따라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회계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데, 상당히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증권투자문화 하에서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의 의도에 부합하여 보기 좋은 경영성

1) 중국의 회계와 세무 제5판, 이상일, 삼정KPMG경제연구원(2006)p.87을 기초로 작성

2)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과를 공시하여 시장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결합을 지닌 제도의 탓에 기인하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경영진이나 주주의 성향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경영진과 주주는 또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서양기업인들과 다르게 중국기업인들은 속성상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³⁾ 이러한 경향은 회계정보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기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Hofstede(1980)의 척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척도를 의미한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 권력거리 척도는 국가 내 비교적 힘이 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척도값이 높을수록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를 의미하며 해당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은 조직 내의 위계질서를 기꺼이 용인한다. 결국 권력 거리 척도는 한 사회가 인간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중국은 높은 권력거리의 속성을 지닌 국가에 해당된다. 동아시아의 평균은 60인데 반하여 중국은 80에 해당된다. 동아시아의 평균에 속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 대만 그리고 홍콩 등이다.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 회피 척도는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상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구성원은 신념과 행동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을 예시하기 위해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자세히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과시즘과 나치즘은 이 측정값이 높으며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문화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측정값이 낮은 국가는 구성원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용인의 폭도 매우 큰 문화로 여겨진다.

3) 리우젠화, 중국의 기업문화, 정은출판 2009, pp.108-115.

개인주의(Individualism): 개인주의 척도는 한 문화에 속한 구성원이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며 구속력이 비교적 느슨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단주의(Collectivism)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문화로서 구속력이 있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통합되어 있는 사회로 정의된다.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은 조직에 충성하면 대가(reward)를 받을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중국은 개인주의 속성이 20으로서 아시아 평균보다 집단주의적인 속성을 보인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로서의 중국의 성격에 기인한다. 이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즉 중국은 개인주의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집단주의적인 국가로서 분류된다.

남성성(Masculinity): 남성성 척도는 측정값이 높을수록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남성적 가치를 선호하는 문화를 지니게 되는데 남성성이 강한 사회는 남성은 강인하고 단호해야 하고 여성은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성의 역할이 분명한 사회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성(Femininity)이 강한 사회는 성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겸양을 표현하고 삶의 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등 구성원 간에 정서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장기지향(LTO)의 척도는 진실성(truth)보다는 윤리성(virtue)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데 장기지향과 관련된 가치는 근검과 인내, 절약심등이 해당된다. 단기지향의 사회는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고 전통에 대한 존경을 보이며 개개인의 보호하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장기지향의 척도는 다소 모호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약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 이 척도는 공자사상의 전통이 없는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에서 장기지향의 가치관과 단기지향의 가치관이 모두 발견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척도에 관하여 118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장기지향적인 사회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1>에서는 국가별로 Hofstede의 문화적인 척도를 보여주고 있다. *는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WA는 세계의 문화적인 척도의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고 AA는 각각의 문

화적인 척도마다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 홍콩 그리고 중국의 평균을 의미한다. 최진현(2002)에 의하면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일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분산시켰지만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중국의 권력거리는 매우 큰 국가에 속하므로 중국회계준칙을 제정할 때 그 사고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준칙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여 완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는 남성적 사회로서 치부, 경쟁, 성공을 숭상하는 사회인데 중국은 여성적 사회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고 사람됨됨이가 겸손하고 약자에 관심을 두고 생활의 질 등을 숭상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회계준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진현(2002)은 중국의 직원복지준칙을 예로서 들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에 직원퇴직금만을 규범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험, 주택공적금과 기타 예외복리를 주요규범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중국문화가 중용지도를 중시하는데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경제가운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며 해당국가의 기업들은 종업원에게 주택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리를 제공하고 빈부차이를 축소시키려 하며 이로 인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중국에는 사회의 온정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사회주의 노선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4) 최진현, Yi-Qing Quan, 중국회계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02, pp.63-83.

〔표1〕 Hofstede 국가별 문화적 지표

	PD	InD	MASc	UA	LTO
Australia	36	90	61	51	31
AA	60	24	60	61	91
Brazil	69	38	49	76	65
Canada	39	80	52	48	23
China *	80	20	66	30	118
United Kingdom	35	89	66	35	25
United States	40	91	62	46	29
Japan	54	46	95	92	80
South Korea	60	18	39	85	75
Germany	35	67	66	65	31
Hong Kong	68	25	57	29	96
India	77	48	56	40	61
Netherlands	38	80	14	53	44
New Zealand	22	79	58	49	30
Norway	31	69	8	50	20
WA	55	43	50	64	45
Philippines	94	32	64	44	19
Poland *	68	60	64	93	32
Singapore	74	20	48	8	48
Sweden	31	71	5	29	33
Taiwan	58	17	45	69	87
Thailand	64	20	34	64	56
Vietnam *	70	20	40	30	80

출처: http://www.geert-hofstede.com/hofstede_china.shtml

2.2 중국회계의 역사⁵⁾

일반적으로 회계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와 그 축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중국의 상업이나 경제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인 변곡점을 기준으로 회계의 역사적 관점의 구분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개의 변곡점은 청일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세 사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구분을 하고자 한다.

1) 일본식 부기제도

우리나라에도 개성부기가 있듯이 중국에도 고대부터 사용하던 부기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부기제도는 외국의 선진문물이 들어오고 중국의 상업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를 강요받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에 노력을 기울일수록 변화된 경제생활을 기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통적인 부기제도에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청일전쟁 승리 이후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은 지대했고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져갔다. 청 정부는 정부 나뉠대로 모든 제도를 일본에서 복제해 왔는데 정부의 행정 조직, 헌법과 의회 제도는 물론 학교 제도, 군대 조직과 경찰 제도까지 일본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들은 중국개혁의 대상으로 일본을 배우고자 하며 일본식을 따랐으며 일본을 거점으로 공화혁명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니 일본의 선진문물의 영향력은 중국에서 그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1911년 일본의 영향아래 신해혁명이 발발하였는데 그 이후 무역회사와 무역규모, 거류민수에서 일본은 영국을 앞서나가기 시작하고 1930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부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중국도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회계제도-부기에 보다 가까운 제도-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부기는 외국 문물의 중국진

5) 중국의 회계와 세무 제5판, 이상일, 삼정KPMG경제연구원(2006), p81.

입 및 중국의 경제부흥노력과 더불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중국에 외세가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청조 후반기부터이다. 청조말기부터 중국경제부흥을 위하여 많은 유학생을 대외에 파견함에 따라 서구식 회계제도가 중국에 소개되고 보다 진보된 새로운 회계방식을 대기업들이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의 회계학 관련교재가 대학에서 강의되었다. 연도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 즉 청조말기(1949년)까지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2) 소련식 계획경제회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인하여 중국은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서구식 회계방식의 사용과 도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구소련의 회계제도를 중국 내에 광범위하게 도입하였다. 중국은 회계교육을 위하여 소련의 회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구문물과 함께 들어온 회계제도는 소련의 제도에 의하여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회계의 특징은 계획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시장경제에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의 회계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공산당이 계획경제에 의존하여 자원 배분 측면에서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기존의 회계와는 다른 것이다. 계획경제회계를 구분하면 1949년 청조말기부터 중국이 개방화물결을 타기 시작한 1978년 이전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서구식 개방경제회계

이상직과 김형진(2008)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1978년 이후 기존 사회주의의 틀을 깨고 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부터 계획경제회계시대 이전과 같이 다시 수많은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중국내로 초청하여 새로운 지

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서구식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1983년 3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시행초안)를 제정 발표하였다. 재 정부는 시행초안을 다시 1985년 3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로 수정하였고 1992년까지 초보적 자본주의 회계제도를 유지하다가 1992년 6월에 중외합자기업회계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 기업회계제도, 주식제 실험기업회계제도, 기업회계준칙 및 기업재무통칙, 업종별 회계제도 등을 발표하고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신회계제도⁶⁾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회계지침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재 정부는 일반기업이 사용하는 회계를 표준화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회계제도와 이와 관련된 회계과목 및 재무제표규정을 폐지하고 2002년 1월부터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회계업무를 보도록 하였다.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회계준칙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 재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여 기업회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9항의 기업회계준칙과 48항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준칙을 2006년 발표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대외개방 수요와 시장경제 발전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점

3.1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연혁

본 연구에서는 고승희(1986)의 한국회계원칙 전개와 이정호외 4인(2003)의 한국 기업회계제도의 발달과 그 전망에서 기술된 시대구분을 따르고 있다. 제1단계는

6) 김확열, 중국 소유형태별 주식제 기업의 회계제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p5.

한국형 회계기준의 태동기인데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하던 1945년부터 기업회계 원칙이 제정되기 전 해인 1957년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원조형 경제로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으며 경제재건을 위하여 기업회계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미국의 회계제도가 미군의 주둔과 함께 도입되고 있었다.

제2단계는 기업회계원칙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1958년에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된 이후 1976년의 제1차개정을 거쳐 제2차개정이 이루어진 1981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25전쟁 이후 경제부흥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외자 도입,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 조세의 공정화, 금융의 적정화 등 많은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해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기업회계제도의 확립이 시급하였다. 당시 대기업을 시설자금융자를 전담하던 한국산업은행은 거래 기업체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 자료를 토대로 동종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제출된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가 일정한 회계원칙에 의거하였는지는 차체하더라도 그 형식 및 계정과목이 각양각색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부에 기업회계준칙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당시 재무부장관 자문기관이었던 재정금융위원회 내에 기업회계준칙분과위원회 및 실무 담당 기업회계준칙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초소위원회의 연구 결과 1958년에 기업회계원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회계보고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회계보고에 관한 기준의 시행세칙적인 성격을 띠는 재무제표규칙이 재무부 고시로 공포되었다. 동 재무제표규칙은 상법, 세법 등의 회계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회계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초의 성문화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후 1973년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환경도 급격히 변화하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온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재무부는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장법인 등에 적용될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서 회계기준의 법제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종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다.

제3단계는 기업회계기준의 시대로서 외감법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1982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된 1998년 12월까지의 시기이다. 외감법이 제정되면서 공인회계사의 법정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대상 회사 전반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증권관리위원회는 종전에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업회계원칙과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관한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재무제표규칙과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관한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를 총망라하여 하나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다. 이후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을 9차례 개정하고,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의 신설, 기업회계에관한준칙과 예규 등을 제정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순운전자본 개념에 의한 재무상태변동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현금흐름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로 인하여 회계기준의 국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주도하에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전 시기와 차이가 없으나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정보의 공시제도가 강화되었고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며 국제화된 회계기준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시대로서 한국회계연구원의 출범과 더불어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서로 바꾸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을 모색하였던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주도하에 회계기준의 제정과 폐제가 이루어진 앞의 시기와 다르게 회계기준의 제정이 민간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대변혁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시기에 해당된다.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설립된 한국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

합성과 기준 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⁷⁾

2007년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역사는 또 다시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21세기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회계부정의 여파로 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흐름에 따라 그동안의 규칙주의(rules-based approach) 회계기준은 원칙주의(principles-based approach) 회계기준으로 변화를 거치고 있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새로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말 현재 40여개 기업은 이미 조기 도입을 결정한 상태이다.

3.2 회계기준의 세계화 전략⁸⁾

〈표2〉는 회계기준의 세계화전략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⁹⁾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방전략에서 현재는 국제회계기준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에는 일본 및 미국의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외국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는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해가능성이 제고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현재 선진국모방전략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만 그대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며 자산손상은 허용하나 환입은 허용하지 않으며 유형자산은 재평가법이 아닌 원가모형만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신회계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을 모방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¹⁰⁾

7) 본 연구에서 구분한 시대기준은 이정호, 고승희, 김완희, 김행선, 신찬수, 한국 기업회계제도의 발달과 그 전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연구센터, 2003 pp2-3을 근거로 하였다. 고승희 한국회계기준의 변천사에서 재인용.

8) 고승희, 한국회계기준의 변천사 수서원, 2007 pp426-430.

9) 서정우, 한국회계제도의 세계화, 회계저널 제6권 2호 1997, p180.

10) 광재원, 중국기업의 신제도 도입문화, 중국문화연구 2009 pp321-340.

[표2] 회계기준의 세계화 전략의 유형 및 평가

세계화 전략	정의	평가
단순번역	회계기준 차이의 조정 없이 단순히 번역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나 정보유용성이 적다.
설명주석	회계기준 차이를 설명하는 주석 첨부	수정이 간단하나 충분한 공시가 없어서 정보유용성이 적다.
조정부속표	회계기준 차이를 수정한 부속표 작성	간단하고 정보유용성이 다소 있으나 충분하고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는 자국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외국회계기준을 기초로 작성	외국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편하지만 동질성이 감소된다.
선진국모방	선진국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	경제적이고 글로벌 효과도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상호인정	상대국의 회계기준 상호인정	별도의 수정이 없어서 간단하나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있다.
지역주의	지역별 회계기준의 통합	지역내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세계적 통합은 아니므로 통합효과가 제한된다.
국제회계기준	IASC의 국제회계기준을 사용	간편하고 통합효과도 높으나 독자적인 회계기술개발은 어렵다.
다수회계기준	상대국의 회계기준마다 별도의 회계보고서 작성	정보 유용성은 가장 높으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출처: 서정우 한국회계제도의 세계화 회계저널 6권 2호 1997 p180

국제적으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국은 활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 회계규정을 통일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회계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제한적이거나 한국회계기준을 변형시켜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회계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¹¹⁾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harmonisation)는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세계화되어가는 제반 경영환경과 개방형 경제구조 및 규모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 특히 1997년과 1998년 우리 경제에 충격을 안겨다 준 외환위기는 이를

11) 장지인,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와 한국의 대응, 경영학연구 1993년 2월 pp179-194;유성재 A New Accounting Horizon in Information Age, 회계저널, 제4권, 1호 1995 pp1-10.

보다 가속화 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되었다.

3.3 중국기업의 문화적 현황

중국 사회는 아편전쟁 이래로 전면적으로 서양 문물을 채택하면서 중국민족의 발전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중국전통을 축으로 하면서 제한적으로 서양 문물을 채택하여 중국발전의 기본 핵심으로 설정하는가의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것이 중국에 보다 적절한 대안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해 왔다. 현대 중국 사회에 이르러 개혁개방을 한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 중국에 적합한 경제발전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에 쫓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관리자적인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는 과제에 대하여 진정으로 논의하며 학습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각종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탐색하며 배우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중국의 사회 현상과 문화적인 특징에 걸 맞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12)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서양사람들과 동양사람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양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동양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사회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말하거나 능력을 홍보할 때도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데 이러한 특성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속성은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을 따라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인 속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3)

12) 리우젠화, 중국의 기업문화, 정은출판 2009 pp108-115.

13) 리우젠화, 전게서, 2009 pp158-162.

중국은 공정가액 측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정자산의 평가를 역사적 원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 역사적 원가주의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이나 개별자산의 가격상승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라고도 불린다. 역사적 원가는 투입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지불한 교환가격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기업에 의해 취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s)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구입한 자산으로부터 취득원가 이상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는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임계치를 의미한다.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장점은 교환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측정이 용이하고 공정가액에 비하여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 취득당시의 구입가격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시점에서의 공정가액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수익과 가장 잘 대응되는 비용으로서의 공정가액이 과거의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비용이 대응되므로 산출된 당기순이익 정보는 현재의 경영성과를 잘 나타낼 수 없게 된다. 15)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자산을 평가할 시 공정가액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을 회계제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 회계기준은 공정가액을 적절하게 그리고 신중히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신흥 경제발전도상국으로서 많은 자산에 있어 아직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외에 중국인들의 속성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의 이러한 속성은 회계정보의 공시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기업이 보고하고자 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역사적 원가하에서는 신뢰성이 확보되는 만큼 목적적합성이 희생되는 반면 공정가액 제도하에서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에는 도움을 주지만 신뢰성이 담보되는 객관성에서는 의문을

14) 이상직, 김형진, 중국회계준칙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2호(통권 12호)2008, p246.

15) 송인만, 윤순석, 최관, K-IFRS 중급재무회계 2009, pp161-167.

제기하게 한다. 현재의 중국인의 속성상 공정가액의 사용을 수용한다면 아마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익조작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공정가액을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만큼 도입하지 못하고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거한 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발한 시장(active market)이 형성되어 있어 공정가액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공정가액을 자산의 측정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6)

IV.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개송도치부법이라는 고유의 회계처리 방식이 전수돼 왔다. 고려시대 상어의 중심지인 개성에서 개발돼 사용되어 온 회계처리 방식으로 일명 개성부기라고도 한다. 특히 개성부기는 오늘날 재무회계 처리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회계 역사나 기술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도 고대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부기방식이 존재하는데 청일전쟁과 사회주의제도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제도로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회계란 인류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표현하는 주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회계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기호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언어가 영어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는 회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각국은 전략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다른 국가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특히 중국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나 독자들에게 회계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

16) 이상직, 김형진, 중국회계준칙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2호(통권 12호)2008, pp 235-246.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參考文獻》

- 고권석, 중국회계해설, 안진회계법인, 서울:조세신보사 2004. 3
- 고승희, 한국회계기준의 변천사 수서원, 2007 pp426-430.
- 곽재원, 중국기업의 신제도 도입문화, 중국문화연구 2009 pp321-340.
- 리우젠화, 중국의 기업문화, 정은출판 2009 pp108-115.
- 서정우 한국회계제도의 세계화 회계저널 6권 2호 1997, p180.
- 송인만, 윤순석 최관, K-IFRS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2009, pp161-167.
- 유성재, A New Accounting Horizon in Information Age, 회계저널, 제4권, 1호 1995, pp1-10.
- 이상직, 김형건, 중국 회계준칙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2008, pp.223-255.
- 이상일, 중국의 회계와 세무, 삼정KPMG경제연구원 2006. 12
- 이정호, 고승희, 김완희, 김행선, 신찬수, 한국 기업회계제도의 발달과 그 전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연구센터, 2003 ,pp2-3.
- 장지인,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와 한국의 대응, 경영학연구 1993년 2월 pp179-194.
- 최진현, Yi-Qing Quan, 중국회계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02 pp63-83.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50년사, 2004.5, pp.361-411.
-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0.

《Abstract》

China began to adopt the IFRS a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is established in Korea. In this study, we attempt to provide useful guide lines which help in understanding accounting strategy that adopt international accounting system by investiga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introduced by Hofstede's scale.

188 中國文化研究 第16輯

This study compa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stages of accounting principles in Korea and China. It is especially suggested that accounting system is influenced by the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 as well as cultural differences.

Keywords :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Hofstede's scale, cultural differences

이 논문은 2010년 5월 12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